

한국산업단지공단 'ESG 경영' 기치로 조직문화 혁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단공은 지난 50여 년간 주력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우리나라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R&D, 일자리, 수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입주기업을 지원해 성장을 이끌고, 산업단지에 문화·복지 기능을 접목해 혁신 역량을 높이기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형 뉴딜을 구현한 산업단지의 디지털·그린 전환에 주력해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ESG가 글로벌 산업계의 화두가 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환경·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 실천에 역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산업단지에서 ESG를 확산하는 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산단공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인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산업단지를 ESG 친화 공간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의 원활한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노력도 본격화했다.

지난 11월 11일 산단공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2021 산업단지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국내 최초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63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관할 단지에 입주한 기업 수는 전국 산업단지(1천246개)의 약 50%에 달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50.6%, 수출의 44.2%, 고용의 45.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ESG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ESG 추진 전략과 입주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산단공은 발표에서 산업단지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K-ESG 허브로 워드(with) KICOX'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어 기업 하기 좋은 친환경 인프라 조성, 협업 기반의 사회적 책임 확산,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의 3대 전략 방향과 저탄소 그린 인프라 확충, 산단 내 순환 경제 활성화 등 12개 전략 과제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돕는 세부 과제로 입주기업 ESG 진단 및 정책 개발, 자체 역량 강화 지원, ESG 이슈 해결을 위한 패키지(진단, 컨설팅) 지원, ESG 협의체 운영, ESG형 산단 공동 혁신 지원사업 등 산업단지 특화형 5대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정부, 기업인, 유관기관 등이 함께 산업단지 ESG 경영 확산과 실천 선언에 서명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동참 의지를 다짐했다.

또 산단공은 ESG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행사 이튿날 본사와 지역 본부가 화상으로 함께 모여 ESG 기반의 '신 경영 전략과 조직문화 브랜드 선포식'을 열었다. 즉 전 직원이 참여하고 공동 모색하는 방식으로 ESG를 핵심 가치로 해 경영전략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새로운 경영전략체계를 위해 '지속 가능(E)', '상생 협력(S)', '청렴 신뢰(G)'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산업단지 혁신 성장, 기업 및 지역 성장, 국민 신뢰 구축의 3대 비전 구현을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지역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등 12개 전략과제도 마련했다.



선포식 행사에서는 전 지역의 임원, 간부와 MZ세대를 포함한 직원들이 함께 변화에 필요한 각자의 행동 약속을 발표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실천하려는 다짐을 되새기기도 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ESG 경영 역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미래를 위해 ESG 확산을 돕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내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 입주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 김정환 이사장 2 산업단지의 날 ESG 확산 공동선언식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4 창원 국가산업단지 5 KICOX ESG 비전, 전략방향 및 추진과제

